

케어랩스 '굿닥', 네이버와 함께 병원예약 서비스 정식 오픈

-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손쉽게 병원 예약 가능
- 환자는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병원은 체계적인 예약 관리 가능
- 케어랩스 스마트 CRM이용 병원 대상 네이버 예약 연동 활성화 프로모션 진행

[2018-11-21 | 263700] 케어랩스(대표 김동수)의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www.goodoc.co.kr)'이 네이버의 '네이버 예약(<https://booking.naver.com/>)'과 병원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굿닥은 지난 7월부터 네이버와 함께 케어랩스 스마트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리)의 병원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안정성 테스트와 서비스 고도화를 마치고 이번에 정식 서비스를 론칭했다.

네이버 아이디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간편하게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진행상황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병원은 환자의 예약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700여 개 병원에서 케어랩스 스마트CRM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마트CRM을 이용하는 병원이라면 간단한 연동 작업을 통해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굿닥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네이버 예약 연동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박경득 굿닥 사업 본부장은 "병원 이용 환자의 불편 사항 1위인 '긴 대기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이버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향후 다양한 EMR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병원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닥은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 출시 후 태블릿 접수와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하면서 환자와 병원 사이의 제약을 해소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끝>

[회사소개]

케어랩스는 2012년 설립된 헬스케어 O2O 솔루션 기업으로, 2018년 3월 국내 O2O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업계 1위 앱 서비스 '굿닥' · '바비톡' ▲병원 및 약국 운영 시스템(S/W) 솔루션 ▲헬스케어 분야 특화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내 헬스케어 O2O 시장 내 독보적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병원 위치검색 - 접수 및 진료 - 처방전 결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부문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문의]**케어랩스 IR팀**강진규: 02-6929-2340 / kangjq@carelabs.co.kr